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행복은 연결감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간화선 세미나 개최 LA안국선원

LA '안국선원' (3115 W Adams Blvd., LA, CA 90018)이 간화선(看話禪) 특별 세미나를 연다.

오는 4월 23-29일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초빙된 수불 스님이 한인 불자들과 함께 간화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안국선원 측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을 탐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 길을 찾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간화선은 불(看) 자, 말(話) 자를 합친 것으로 말을 간(看)하는 선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이란 화두를 말한다. 화두와 하나가 된 상태가 간화이며, 간화를 통한 선이 간화선이다.

한편 한국 최대 불교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한국 안국선원(선원장 수불스님)은 지난해 10월 간화선 세계화를 목표로 LA 안국선원을 개원했다.

▶ 문의: (213) 358-9420

담임목사 취임식 나성한미교회

나성한미교회(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가 9일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및 담임목사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홍충수 목사가 이 교회의 제 7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홍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40년이란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것은 매우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 큰 무게감이 있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도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나성한미교회를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부름 받는 공동체, 세움 받는 공동체, 보냄 받는 공동체' 의 비전을 가지고 묵회해 가겠다." 고 말했다.

▶ 문의: (562) 714-0691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느낄 수 있어야 진짜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지금 그리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럼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으면 본인들 각자가 목표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답한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만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곧 문제가 생긴다.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쁜 마음은 아주 잠시이고, 바로 또다시 그것보다 더 높은 목표로 자동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통장에 돈이 500만원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하며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영숙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영숙 씨는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근검절약했고 드디어 통장에 500만원이 모였다. 그 순간 영숙 씨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뿌듯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500만원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1,000만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막상 통장에 1,000만원이 생겨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0만원이 생기면 2,000만원이 눈에 들어오고, 2,000만원이 생기면 이번엔 5,000만원, 1억원쯤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 속 오아시스의 영상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멀리 보이는 곳에만 도착하면 마실 물과 휴식할 나무가 있을 줄



알고 죽어라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해 보면 오아시스는 없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만족할 줄 모르고 정신 없이 뛰게 만들 뿐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만든다. 잠시라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고 몸이 병이 들든 말든 무조건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라고 종용하는 자본주의 마인드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 지향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 현재' 의 행복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원했던 것을 성취하고 잠시의 행복감 뒤에 밀려오는 허탈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표가 달성되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간에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느끼게 된다.

우리 인간은 온 우주와 연결된 존재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과 순환

하면서 연결감을 느낄 때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외모가 출중해도 혼자 고립되어 외롭게 생활한다면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반대로 별로 가진 것 없이 평범해도 주말 저녁마다 나를 불러주는 친구들이 있고, 아프면 찾아오는 지인들이 많으면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감이 번진다. 즉 행복은 먼 미래나 거창한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지인들을 만나 밥을 먹으면서 손뼉 치고 웃는 그 순간 속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쥔 것들을 남들과 나누어서 순환시킬 줄 알아야 한다. 가진 것이 있으면 먼저 베풀고, 내 마음의 힘든 부분도 감추지 말고 먼저 꺼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목적이 없이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은 만남, 서로서로 따뜻한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고도 행복하게 한다

-헤민 스님-

일러스트=shutterstock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